

#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120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이 60점, [문항 2]가 4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십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십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십시오(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수정액 불가).
5.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각 문항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쓰시오.
5.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십시오.
6.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지의 답란이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 논술고사 (인문계열)

**[논제]** '인하국'은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 재원은 독신 가구와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간의 차등적 징세를 통해 마련하려 한다. 이러한 인하국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상황이다.

**[문항 1]** <다음> 중 하나의 주장을 택한 후, 아래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1,000자±100자, 60점)

— < 다 음 > —

**주장 1:** 차등적 징세를 통한 직접적  
결혼·출산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

**주장 2:** 차등적 징세를 통한 직접적  
결혼·출산 지원 정책에 반대한다.

— < 조 건 > —

1. 제시문 (가)~(다)를 모두 활용하여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2. 제시문 (가)~(다)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세 가지 반론을 제시할 것.
3. 위에서 제기한 반론을, 조건 1에서 활용하지 않은 논거로 각각 재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것 (제시문 밖에서 논거를 찾는 것도 가능함).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문항 2]** 제시문 (라)의 [자료 1]~[자료 4]를 활용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600자±60자, 40점)

— < 조 건 > —

1. [자료 1]~[자료 4] 중 [문항 1]에서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두 개 선택할 것.
2. 선택한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 <제시문>

(가) 결혼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이며, 국가나 종교 기관에 등록하여 법적·사회적으로 공인받는 제도적 절차를 거쳐 성립된다. 결혼으로 형성된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로 재생산을 통한 종족 보존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에 결혼 관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사회적 구속력을 지닌다. 많은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 혼인에 대한 법과 규범을 마련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적으로 결혼은 약 1만 년 전 농경사회의 시작과 함께 나타났다. 결혼에 관한 가장 오래된 규범은 기원전 7천 년 경부터 메소포타미아에 모여 살며 농사를 짓기 시작한 수메르인의 ‘우르남무(Ur-Nammu) 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남편이 아내를 간통으로 고소하였으나 아내의 무고가 입증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1/3 미나의 은으로 보상해야 하며, 결혼을 정해 놓고도 딸을 다른 남자와 혼인시키면 딸의 아버지는 예비 사위에게 받은 예물의 두 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결혼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였다. 결혼은 사유재산권이 등장하면서 가계가 형성한 지위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결혼은 유력한 가문들이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군사동맹을 맺고 평화조약을 체결시키는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말에 이르러 결혼에 대해 지금과 같은 개인주의적 관점이 도입되고, 결혼의 결정에 있어서도 사랑이나 동반자와 같은 현대적 개념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산업화, 도시화, 중산층의 증가와 함께 사람들은 전통적인 대가족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에 기초한 새로운 방식으로 가정을 형성하게 되었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행복 추구를 개인의 정당한 권리로 보았으며, 결혼도 교회나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행복과 사랑이 결혼의 주요 이유가 되면서 결혼을 통해 가계를 승계하고 가문의 부와 지위를 추구하던 전통적인 기능은 약화되었다.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가정은 대부분 결혼을 통해 형성된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시대에도 가정은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 누구나 가장 친밀한 혈연관계인 가정생활을 통해 사회활동에 필요한 바람직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부모를 모방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은 사회화에 필요한 사고방식과 도덕성도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그동안 가정이 주로 제공했던 심리적 안정감과 가족 구성원의 돌봄 기능, 그리고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가르치는 사회화 기능이 점차 다른 영역으로 분산되고 있다. 특히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육아나 노인 돌봄 등이 국가의 복지제도와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 흡수되면서 가정의 기능과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족과 가정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결혼에 대한 기존의 생각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혼인과 출산 기피, 이혼 증가가 노동력 부족과 인구 감소를 야기하는 주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렇지만 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개인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게 되기에 이런 사회 변화의 추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결혼의 보편성이 흔들리면서 독신, 동거, 대안 가족 등 결혼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방식이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등장한 1인 가구의 증가이다. 1인 가구는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청년층의 경우 그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자신에게 시간과 재화를 많이 투자하며 사회생활도 활발한 편이다. 그런데 청년층 1인 가구가 40퍼센트에 달하는 시대는 노인 인구가 40퍼센트에 이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과제를 낳는다. 1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과거에 가족 중심의 가정이 담당했던 많은 기능을 앞으로는 사회와 국가가 맡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사회·문화』 활용

(나) 『네 이웃의 식탁』은 4가구의 모습을 통해 현대가정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 추진력 있고 활달한 홍단희의 네 식구, 6촌 언니의 약국에서 보조일을 하는 서요진의 세 식구, 프리랜서 그림 작가인 조효내의 세 식구, 생활력이 강한 강교원의 네 식구. 이들은 서너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비좁고 낡은 빌라와 원룸을 전전하는 등 보육은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불안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은 이들 가정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다. 그 신청 자격은 꽤 까다로워 ‘만 42세 미만으로 한국 국적을 지녔으며 자녀가 1인 이상 있는 부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리고 입주 후 자녀를 최소 셋 이상 갖도록 노력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거주를 보장해주었다. 외벌이 부부와 자녀를 2인 이상 둔 부부를 우대한다는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과 달리 출산능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이었다. 도심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외곽에 생활 편의시설은 부족했지만, 정부가 전원 속 빌라를 파격적인 수준의 저렴한 전세가로 제공해서인지 입주자 선발 경쟁률이 20:1에 달할 정도로 치열했다. 입주 신청 동기의 90%가 도시에서 버티기 어려운 전세금이었던 점을 볼 때 모두가 세 명의 자녀를 갖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안정적인 주거환경만 보장된다면 세 자녀 가족 계획을 받아들일 가정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당첨된 전체 12가구 중 먼저 4가구가 입주했고, 이들은 곧 육아와 건물관리를 포함하여 특별한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이는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라는 이름에 부응했다기보다는, 도심과 연계된 대중교통의 부족,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교육 시설과 생활기반 시설 미비 등의 문제를 입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생활방식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 문제였다.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마땅치 않은데다, 단순한 보육이 아닌 다양한 내용의 아동교육을 위해서는 개별 육아보다 공동육아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전에 비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도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육아와 생활상의 큰 부담을 덜어내기에는 부족했을 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다. 공동육아라고 하지만 아이들 돌봄 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다. 여성들은 여전히 육아 활동으로 지쳐 있다. 특히 아이를 출산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매일 출판사의 독촉으로 밤샘 작업에 지쳐 있는 조효내는 오히려 개별 육아 때보다 자신의 그림 작업시간이 더 부족하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공동생활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하거나 전체 모임에 참여하는 데도 소극적이다. 이런 그녀에 대해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홍단희는 기본적인 성의가 없다고 마땅치 않게 여긴다. 약국 보조일로 매일 늦게 퇴근하는 서요진 역시, 영화감독을 꿈꾸는 무직자 남편이 육아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육아를 위한 밑반찬 만들기와 온갖 자질구레한 일은 그녀의 차지가 된다. 한편 홍단희의 남편은 차가 고장이 나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요진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웃의 난감한 상황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어 홍단희의 남편과 카풀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서요진은 홍단희 남편의 과도한 호의에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싶었지만,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남의 성의를 곡해하고 이웃 관계나 깨는 여자로 보지 않을까 곤혹스러워한다.

얼마 후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의 일부 가정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 사이와 이웃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서요진이 홍단희 남편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해 친정으로 가버리자 그녀의 남편도 뒤이어 떠난다. 이어 일과 가정 대소사를 떠맡다 지쳐버린 조효내도 남편과 갈라서고 그곳을 떠난다. 그러나 강교원은 애초 그 주택이 부부 중 한 명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계획된 곳인 만큼 자기 가족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에서 강교원이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즈음,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직장마저 퇴직한 또 다른 외벌이 가정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입주한다.

고등학교 『문학』,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활용

(다) 기원전 1세기 말의 로마에서는 자식을 적게 낳는 풍조가 뚜렷해졌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 시기의 로마가 가난하고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그와는 정반대였다. 다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 외에도 쾌적한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늘어났을 뿐이다. 여자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사회적 발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긴 했지만,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독신으로 돌아가도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다.

기원전 18년, 아우구스투스는 이러한 풍조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했다. 독신 증가와 출산 기피로 인구가 감소하면 무엇보다 군인을 충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군대는 공동체 수호의 확고한 이념을 가진 시민으로 이루어졌다. 로마인이 생각한 시민은 공동체의 자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공동체를 방어할 의무를 갖는 사람이었다. 번영기의 로마 군대는 외국에서 모은 용병들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들로 구성된 중무장 보병대였다. 로마군은 당시 세계의 실질적 지배자였다. 로마군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사로잡은 포로와 획득한 노획물은 로마제국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은 모두 로마의 속주가 되었으며, 토착민은 로마 관리의 지배를 받았다. 토착민은 엄청난 세금을 바치고 곡식도 로마로 보내야 했다. 노동력과 세수의 증가로 향상된 경제력을 토대로 로마인은 제국 전역으로 갈래갈래 뻗어 있는 포장도로를 닦았고, 수도를 설비하여 맑은 샘물과 목욕 시설을 만들었으며, 실용적 건축 양식과 합리적인 로마법을 남겼다. 로마군은 로마제국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융성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이런 로마군의 모태인 지도적 시민 계급의 인구 감소는 곧 제국의 위기를 의미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아우구스투스는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이하 율리우스법)을 제출했다. 율리우스법의 성립으로 25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와 20세부터 50세까지의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독신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자라도 자녀가 없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면할 수 없었다. 첫아이가 태어나야만 비로소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산을 상속할 권리나 상속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 친구나 친지에게도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고대 로마에서는 이 법률이 큰 영향을 미쳤다. 변호는 무보수로 하도록 정해져 있던 로마에서 키케로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변호해 준 사람들의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율리우스법은 상대적으로 독신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여자는 이른바 ‘독신세’로 보아도 무방할만큼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자식이 없는 독신 여성은 50세가 넘으면 어떠한 상속권도 인정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 독신 여성이 5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50세가 넘자마자 이것을 유지할 권리마저 잃게 된다. 재산이 몰수되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했다. 2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재산을 가진 여자는 50세 이전이라도 결혼할 때까지는 해마다 재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1퍼센트를 직접세로 국가에 바치도록 규정되었다.

율리우스법의 기본 정신은 독신자들이 자녀를 낳아 키움으로써 국가에 봉사하지 않았으니, 즉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사유재산 보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로마법의 기본권도 누릴 자격이 없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아우구스투스가 제출한 율리우스법은 로마제국의 인구 감소 추세를 멈추게 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의 로마 황제들도 율리우스법을 제국 운영의 기본 정책으로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로마제국의 쇠퇴를 막고 상당 기간 번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은 이를 일컬어 ‘제국의 위력은 인구에 있다’는 말로 설명한 바 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계몽주의 사상을 거친 오늘날 율리우스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자식을 적게 낳으려는 풍조와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오늘날의 많은 국가들에게 로마제국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세계사』, 『생활과 윤리』 활용

(라) [자료 1]~[자료 4]는 인하국의 인구 정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다. 각 자료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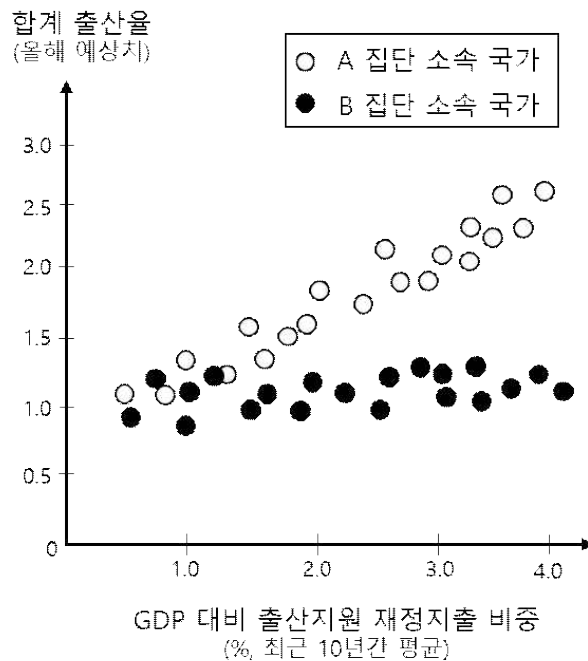
<자료 1-1>은 인구, 국내총생산(GDP), 지리적 특성 등 거시적 환경이 비슷한 40개국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인당 GDP 대비 자녀 양육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의 변수별 평균값을 정리한 표이다. <자료 1-2>는 두 집단에 속한 국가들을 GDP 대비 출산지원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합계 출산율에 따라 분류한 그림이다(각 동그라미는 각 국가를 나타낸다). B 집단의 특성에 가까운 한 국가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자료 1-1> 40개국의 집단별 변수의 평균값

변수	A 집단 평균	B 집단 평균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133%	212%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27.5%	38.4%
1인당 GDP 대비 자녀 양육비	4.3	7.5

- \* 변수별 수치는 최근 10년간 평균치로 계산
- \* 주택시가총액: 한 나라의 전체 거주용부동산(주택)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
-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수/전체 임금근로자 수)×100 (%)
- \* 1인당 GDP 대비 자녀 양육비: 자녀 1명을 출생부터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1인당 GDP로 나눈 것

<자료 1-2> 40개국의 GDP 대비 출산지원 재정지출에 따른 합계 출산율



- \*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 GDP 대비 출산지원 재정지출 비중(%): 출산장려금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지원에 사용되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2]**

<자료 2-1>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경제 수준, 지리적 특성 등 거시적 환경이 서로 비슷한 A, B, C, D, E국의 출생률과 출생률의 증감률, 그리고 가구형태별 실질세부담률을 정리한 표이다. A국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자료 2-1> 각국의 출생률, 출생률의 증감률 및 가구형태별 실질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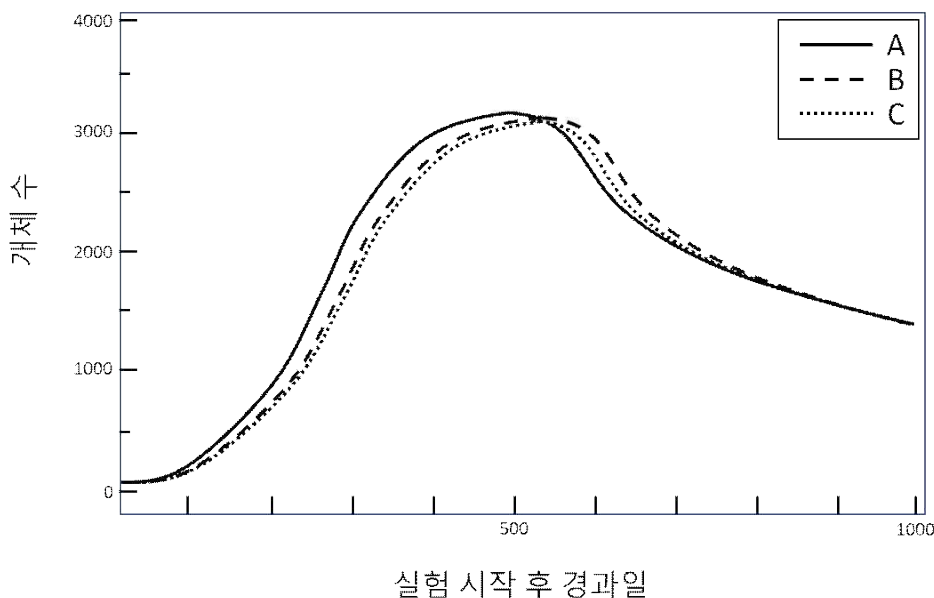
국가	출생률 (올해 예상치)	출생률의 증감률 (%, 최근 3년간 평균)	가구형태별 실질세부담률 (%, 최근 10년간 평균)	
			2자녀 외벌이	무자녀 독신
A국	7.0	-0.3	24.0	26.5
B국	8.2	0.1	20.5	35.7
C국	9.4	0.2	15.9	38.3
D국	19.1	-0.2	21.1	23.9
E국	12.0	0.0	22.5	29.5
OECD 전체 평균	12.1	0.0	25.6	32.5

- \* 출생률: 특정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를 그해의 인구로 나눈 것(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
- \* 출생률의 증감률: (당해년도 출생률-직전년도 출생률)×100/직전년도 출생률 (%)
- \* 실질세부담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

**[자료 3]**

먹이 양에 따른 생쥐 군집 크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공간을 세 군데(A, B, C) 마련하여 각 공간에 암컷 6마리와 수컷 6마리씩 풀어놓았다. 다른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만든 상태에서 매일 일정 시간에 배급되는 먹이의 양을 실험공간별로 달리하였다. 실험 시작일로부터 500일까지는 실험공간 A, B, C에 전체 개체의 100%, 90%, 90%(순서대로 A, B, C)가 먹을 수 있는 양을 배급했다. 500일 이후부터 실험이 종료되는 1,000일까지는 이 수치를 100%, 100%, 90%(순서대로 A, B, C)로 조정했다. 햇빛, 온도, 습도 등은 생쥐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조절했으며, 생쥐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은 모두 차단했다. 실험 결과는 <자료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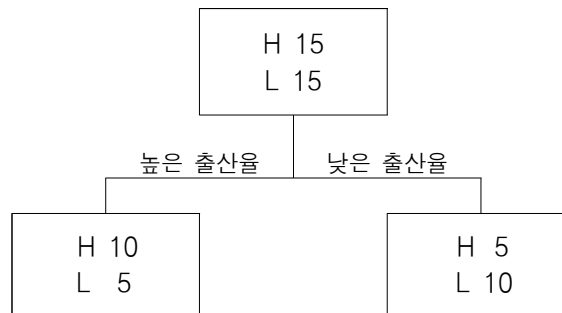
<자료 3-1> 경과일별 생쥐 개체 수 추이



**[자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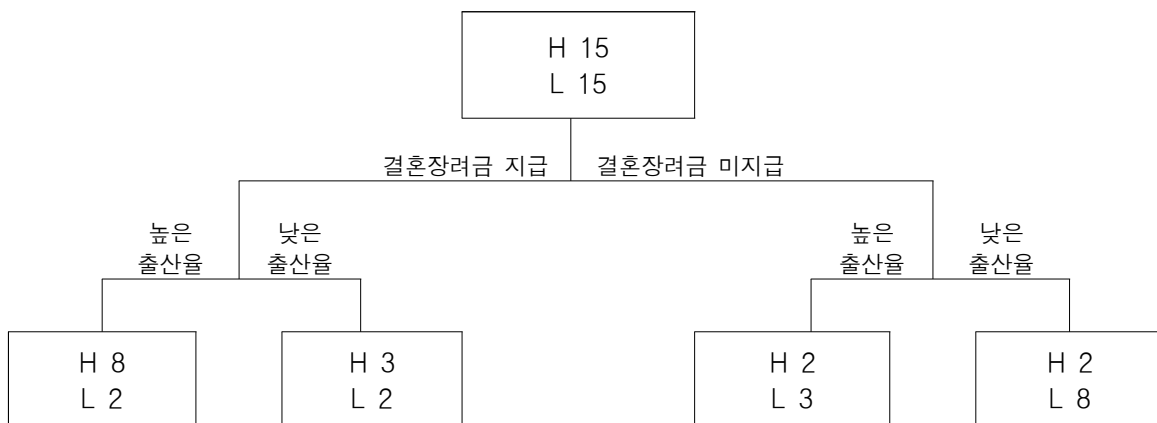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30개 국가를 표본으로 구성하여, GDP 성장률 상위 15개 국가는 고성장률 국가(H)로, 하위 15개 국가는 저성장률 국가(L)로 표기하였다. <자료 4-1>은 출산율을 기준으로 표본을 나누었다. <자료 4-2>는 동일한 표본을 결혼장려금 지급 여부에 따라 나눈 뒤, 출산율에 따라 다시 구분하였다.

<자료 4-1> 출산율에 따른 구분



\* 해석 예: 좌측 하단 상자에서 'H 10'은 GDP 고성장률 국가가 10개, 'L 5'는 GDP 저성장률 국가가 5개인 것을 의미함

<자료 4-2> 결혼장려금 지급 여부와 출산율에 따른 구분



\* 해석 예: 맨 좌측 하단 상자에서 'H 8'은 GDP 고성장률 국가가 8개, 'L 2'는 GDP 저성장률 국가가 2개인 것을 의미함













